

정보화사회를 향한 미래의 출판정책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출판정책 대화모임 지상중계

문화부에 의해 내년도가 '책의 해'로 지정되면서 한국출판문화발전의 한 전기를 맞게 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출판정책 대화모임이 지난 29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노병성(대전전문대 교수) 김태경(이론과실천사 대표) 유은영(자유기고가) 이두영(출협 사무국장)씨 등이 공동연구한 이날의 발표내용중 '종합정책' 부분을 발췌소개한다.

미래의 책, 책의 미래는 이제 더이상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출판정책을 고려하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출판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갖는 일이다. '출판을 다르게 생각하기'는 가장 핵심적이고 선결해야 할 출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책이 고답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나 지적 신분의 상징이었다면, 미래의 책은 '이용 가능한 정보/지식'이라는 형태로 그 개념이나 이미지가 변화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출판물은 지식의 저장고나 외형적 물체로서의 가치가 중요시되기도는,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도전 중에서 중요한 측면은 책이라는 미디어와 다른 미디어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점이다. 영화나 텔레비전, 음반 등의 영향으로 '책의 영상화'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책과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컴퓨터 등과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글자로 기술된 체계적 지식과 비글자적 지식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책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양한 매체, 다양한 언어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근자에 언급되고 있는 '출판의 위기상황'이 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면 위기탈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위기의 근본은 출판이나 정부 당국자가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개념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변화를 따라잡고 선도하는 일, 그것이 출판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정보화로의 출판산업 구조변화

책의 변화에 따라 출판산업의 구조도 급속한 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 여기서 변화의 방향이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선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한국출판업은 아직 산업화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화의 압력을 받고 있기에 문제는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미래를 앞당기려면 산업화정책을 정보화정책에 종속시켜야 한다.

산업화는 전근대적 생산구조를 자본과 조직의 대규모화 및 합리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산업화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이미 대기업화된 대형 출판/유통업체들이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합리화정책이다. 둘째로는,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추진의 예에서 보는 것 같이, 중소기업 출판업자들의 공동노력에 의해 대규모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산업화는 대기업화와 합리화를 통해 질적으로 변화되고 국제적으로 개방되는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다당적 정책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정책은 '규모의 경제'라는 구태의연한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기에, 그 유효성이 의문시된다. 대규모화는 자본의 유동성을 제약하며, 조직운영의 합리화는 관료주의화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에 경영의 불감증을 초래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화를 우선시할 때 곧 부담으로 다가올 불필요한 비용의 가능성을 줄일 뿐 아니라, 국제화된 시장환경 속에서 한국출판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산업화정책에서도 정보화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출판업 정보화정책의 핵심은 출판인의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동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일이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교육하는 일은 출판업의 정보화를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투자이다.

넓은 조직과 비효율적인 비용부담 부분을 과감하게 개편하는 일은 이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출판기술의 뉴미디어화는 정보화정책에서 세번째 중요성을 갖는다. 하드웨어의 도입에 따른 작업 효율의 향상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재창조를 위한 관련직원의 능력향상이 관건이다.

출판과 관련된 정보산업의 육성은 출판업의 정보화를 위해 고려할 네번째 항목이다.



정보화에 소요되는 기금의 확보는 일차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운영되는 기금으로는 공익성을 띤 출판금고와 출판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민간기금이 있으나, 그 절대액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출판금고의 경우 국가지원의 몫을 늘리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의 성격상 민자유치와 venture capital의 확보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금의 사용방향을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대폭 전환하는 일이다. 출판금고와 같은 공공자금의 경우 정보화 사업 쪽에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반면 개별 출판물에 대한 지원에서는 일반 은행 혹은 특수은행의 창구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출판업에 대한 자본의 유입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출판사의 산업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담보를 전제로 한 일반은행 및 출판금고의 여신제도는 사채시장을 조장할 뿐 아니라, 부동산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기획안을 놓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문화부나 출판협회는 관련부처 및 은행계와 다각적인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기간산업의 하나로 출판업이 재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출판업의 산업분류 개념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출판업은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종이 및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업(printing publishing and allied industries)'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출판업

을 비롯한 각종 문화산업이 정보화사회에서 기간산업의 위치를 차지해감에 따라, 이를 '정보산업'으로 자리를 매길 수 있는 정책개념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산업이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정책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관계법을 정보화사회에 맞도록 개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행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정책개념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산업적 성격이 판이한 출판업과 인쇄업을 동일시한 점, 정치적 고려가 선행한 점 등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나아가 뉴미디어화, 다른 매체나 장르 사이의 장벽 무너짐, 유통구조의 개혁,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산업진단은 물론 전문적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시장개방, 반드시 위기만은 아니다

출판시장개방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개방을 보는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시장개방을 보는 기존의 시각은 선진출판사와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낙관적 개방주의와, 자본결정론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의 괴멸을 예측하는 비관적 보호주의로 양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방주의는 국제적 권력관계의 추세를 바로 보는 반면 국내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주의는 민족경제와 민족문화

한솔 원고는행 주요 색인

■국 내 원 고

- I-002 **공부 방해 (불교 방송 원고)** / 명상문학 / 원고지 800에 내외.
:명상가인 필자가 발길 닿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떠돌며 만나는 사물과의 대화.
- I-011 **자치 행정의 장기 계획** / 지방자치 소개서 / 원고지 1,200에 내외.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에 대한 소개서로 한국의 실정에 꼭 필요한 항목들이 응축되어 있다.
- I-023 **중국의 명승고적** / 여행 안내서 / 원고지 1,300에 내외.
:중국 연변의 교포가 현지 방방곡곡의 명승고적들을 자세하게 두루 소개한 안내서.
- I-026 **禪香清談** / 불교수필 / 원고지 / 1,000에 예정, 현재 연재중.
:시와 함께 읽는 불교 수필로, 이름 높은 스님들의 화두를 시로 풀어 화두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I-028 **커피 맛은 주방장 몫** / 감성 연작 아프리카 / 원고지 500에 내외.
:스물 세 살의 참새 같은 한 여성과 그를 지긋이 내려다 보는 한 남성이 주고 받는 내면의 편지.
- I-029 **정상에 오른 사람들** / 휴먼 스토리 / 원고지 1,000에 내외.
:각 분야의 정상에 오른 인물들의 뒷얘기로, 유명 여성지에 소개되었던 글과 미발표 원고 모음집 (김영삼, 박태준, 정근모, 이철, 정주영, 도이 다카코, 이브 몽땅, 루이제 린저, 이사벨 라랑 등 다수)
- I-043 **인개주의보** / 추리소설 / 원고지 1,200에 내외.
:귀가길 택시 안에서 성폭행 당하고, 영등포 사창가에 팔린 여자. 강제로 포르노를 찍고 가책에 못이겨 자살한 약혼녀의 혼을 달래기 위해 머나먼 북수길에 오르는 주인공. 현역 작가의 야심작.
- I-045 **추리소설 창작노트** / 소설 창작기법서 / 원고지 750에 내외.
:현역 추리소설 전문 작가의 추리소설 창작에 대한 기초 입문서. 창작의 이론 / 창작의 실제 / 추리 문학 등단의 길 등.
- I-046 **인도기행** / 기행문 / 현재 월간지 연재중.
:선명하고 강렬한 사진과 해설이 곁들여진 기행문. 인도의 풍물이 물씬 배어남.
- I-047 **하이델베르크 연가** / 여행 에세이 / 현재 월간지 연재중.
:세계의 유서 깊은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흔적을 모으고 회상하며 인생의 의미를 되짚고 있음.
- I-048 **꿈꾸는 강** / 장편소설 / 원고지 1,700에 내외.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쓰디쓴 도시의 세태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는 한 여성의 인생기.
- I-049 **해돋는 장강(長江)** / 중국 기행 에세이 / 원고지 800에 내외.
:고대 요순에서 근대 양계초까지 4천 년 동안,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사진과 지도가 구비되어 사실감을 더해줌.
- I-050 **내 사랑 조세핀에게** / 사랑의 편지 모음집 / 원고지 1,000에 내외.
:루소와 소피부인, 나폴레옹과 조세핀, 릴케와 타시스, 이효석과 × × 등 세계적인 연인들의 연애편지가 수록되어 있음.

■국 외 원 고

- 2-003 **여성 편집자** / 소설 / 원고지 1,500에 내외 / 완역.
:주인공은 어머니로 인해 어릴 때부터 카탈리적인 엄격함 속에서 성장하나,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반대로 주점에서 알게 된 남자과 동거하는 등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다. 그녀의 삶은?
- 2-028 **황하의 노을** / 소설 / 원고지 1,600에 내외.
:자국 현대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작가의 작품. 동구를 비롯한 구미 및 아시아 등지에서 번역, 출간됨. 장기간 말기의 타락과 부패가 만연할 무렵, 외국 유학을 다녀온 주인공의 좌절과 사랑.
- 2-040 **평민들의 신화** / 원고지 1,700에 내외 / 완역.
:남다른 사교술과 집념으로 출판 혁명을 주도한 평민들을 고안, 세계출판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알렌 래인의 일대기.
- 2-063 **중국의 10대 환관** / 인물 탐구 / 원고지 1,100에 내외 / 완역.
:환관들은 생식기를 잘리우는 천형을 받은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중국 역사에 기록된 환관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내면 세계와, 외부의 싸늘한 눈빛들이 생생하게 묻어 있다.
- 2-068 **옥수수 밭의 아이들** / 추리소설 / 원고지 1,000에 내외 / 완역.
:옥수수 밭의 정령을 받들어, 열 아홉살 이상의 성인들은 부모 친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살해하는 광기 넘치는 아이들의 천국. 파경에 이른 중년 부부 한쌍이 이곳을 우연히 지나게 되는데.
- 2-069 **리리의 가을** / 장편소설 / 원고지 1,000에 내외 / 번역중.
:열정의 여인 리리가 빛나는 이상을 가진 한 남자를 일생동안 사랑하는 순애보.
- 2-070 **키키와 다이아몬드** / 갱 소설 / 원고지 1,200에 내외.
:미국 갱계의 전설적 인물인 '잭 다이아몬드'의 실제 삶을 토대로 하여, 위험천만하나 사랑과 의리 넘치는 그의 삶을 소설로 형상화.
- 2-071 **설표** / 탐험기 / 원고지 1,600에 내외.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설표를 찾아 히말라야 설원을 헤매는 작가. 선불교에 조예가 깊은 그는 유리산 고대 불교사원에 있는 라미승까지 만나고자 하는데.
- 2-072 **싸움터의 역사** / 전쟁사
:BC 216년부터 제2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얽힌 모든 것을 추적, 재구성한 세계 전쟁사. 세계 명장들의 일화와 함께, 그 시대의 군복, 무기, 전쟁도, 컴퓨터로 재현한 전황판(지도)이 첨가됨.
- 2-074 **노새와 담나귀** / 명상집 / 원고지 1,300에 내외 / 완역.
:삶과 죽음, 고통과 쾌락, 빛과 어둠 등 우주 삼라만상의 양극을 내면으로 끌어모아 정화시키고자 한 성자의 명상기. 우화가 곁들여져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다.

*원고에 대한 문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하고 풍부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솔에서 하는 일

출판기획 · 출판제작대행 · 사사제작 · 광고기획 · 전자조판 · 디자인 등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735-4997 / 팩시 722-3866

의 중요성을 바로 보는 반면 '보호'가 가능하다는 환상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현실은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 이를 소화할 만한 정책적 개념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시장개방에 대한 양극적 시각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념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보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출판시장은 조만간 개방될 것이라는 확고한 판단에 입각해야 한다. 개방하면 괴멸되기에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사고, 혹은 보호가 한시적으로라도 가능하고 그 기간을 가급적 늘려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는 문제를 보는 눈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하며,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고려를 상실할 수 있다.

시장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부분을 분명히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을 통한 선진 출판업 및 유통업의 경영 노하우 학습, 범세계적 서지정보의 확보, 저자 및 독자의 개발, 국내 저작권제도의 확립, 뉴미디어화의 노후 확보, 외국 출판사나 유통업체를 통한 한국출판의 세계시장 개척 가능성 재고, 외국 출판/유통업자의 이익분의 국내환수 등을 분명히 계상하여 국내 출판업의 발전에 이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 시장개방의 문제는 한국 출판업자 및 외국 출판업자의 단선적 구도에서 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출판산업의 전근대적 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외적 자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천적 시각에서 시장개방을 한국 출판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출판인은 시장개방을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자극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반면 구태의연한 체계 속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출판인에게 있어서 시장개방은 위기로만 인식될 것이다.

'대한민족출판문화권'의 형성

미래 한민족의 문화적 발전은 단순히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에만 기대할 수 없으며, 광역의 민족공동체의 형성에서 보다 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현재 '한민족 공동체 문화'는 가속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판문화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형성되어 갈 광역 출판권을 '대 한민족 출

판문화권'이라고 부른다면, 지역적으로는 남북한, 만주, 연해주 및 일본, 미국, 구소련, 기타 교포 밀집지역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문화적으로는 위 지역에 사는 '문화적 한국인' 및 그들과 밀접히 연관된 외국인들의 삶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은 단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동질적이면서도 매우 이질적인 이들을 대 한민족 출판문화공동체로 키우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개념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광역출판권을 포함한 '대 한민족 문화권'의 형성은 가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한국판 정보화사회의 최고형태가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구가 조속히,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나 출판협회 등에서는 여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이 얽힐 때 한국문화의 발전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우선 이민을 만들어낸 100여년간의 민족경험을 이러한 광역문화권의 기초 위에서 소화할 때 문화적 전통의 발견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어, 소련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와 그에 부수된 문화를 하나의 문화공동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출판인들이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여건상 '대 한민족 출판문화권'의 형성에는 남한의 출판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각 지역의 출판현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이다. 다음으로는 저작권이나 수출입에 따른 장벽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통상권을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상이한 언어, 사고방식, 습관이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개발하는 일이 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광역출판문화권을 기초로 할 때 한국문화가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넓혀진 문화권을 전제하면 시장개방을 '시장잠식'이라는 수세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국출판의 국제화'라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 한민족 출판문화권'의 형성은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적극적 방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